

현대공업, 1분기 매출액 553 억 원...전년比 32% ↑

- ▶ 2021 년 1 분기 영업이익 38 억 원 기록...86% ↑
- ▶ 신차효과와 기존 차종 부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속적인 매출 전망

<2021-05-12>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 1분기 매출실적이 현대차 제네시스 인기를 바탕으로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현대공업이 2021년 1분기 매출액 552.5억 원, 영업이익 38.3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32%, 영업이익이 8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해 38.8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공업 관계자는 실적향상의 주요인으로 프리미엄 신차효과를 꼽았다. 특히 제네시스 G80과 GV70, GV80이 국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이룬 매출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현대공업 측은 설명했다. 현대공업은 해당 제네시스 모델에 시트패드,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등을 공급한 바 있다.

덧붙여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5와 스타렉스 후속모델 스타리아, 기아 K8과 EV6등 신차 부품공급 계약으로 향후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현대공업 관계자는 “신차 부품공급으로 인한 신차효과와 기존 차종 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앞으로도 매출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전했다.